

## 초산모의 모유수유 경험

김 신 정\* · 양 속 자\*\*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건강이란 인간의 기본적인 요구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본질적 요소이며, 더우기 영 유아기의 건강은 앞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틀이 된다는 의미에서 전 생애를 통해 어느 시기 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영 유아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에 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요구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유수유 실천에 따른 올바른 영 유아 영양을 통해 이룩될 수 있다.

모유영양은 모아에게 많은 잇점이 있다. 즉, 영양측면에서는 생존에 필요한 일차적인 영양원으로 영아의 성장발달에 가장 적절한 영양소로 구성되어 있고, 면역물질이 포함되어 소화기 감염이나 호흡기 감염, 알레르기 질환으로부터 아기를 보호하며, 생후 6개월 까지 아기에게 가장 훌륭한 영양법이다. 어머니에게도 수유중 자궁수축을 촉진하고 유방암 발생을 감소시키며 그의 경지성이나 간편성등 많은 장점을 갖으며, 어머니와 아기의 상호작용을 증진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 애착형성과 긍정적인 모아관계를 증진시키는데도 중요하다 (남매륜, 1983 ; 정금희, 1996 ; Forman, 1974 ; Koltzco et al., 1989).

1980년대를 전후하여 모유수유 권장운동으로 선진국에서는 모유수유율이 상승하였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취업의 증가, 핵가족화로 인한 역할모델의 부재, 사회적 지지 체계의 부족, 모유수유로 인한 불편감에서 벗어나려는 욕구, 대중매체를 통한 분유회사의 과대광고, 병원의 모아분리 운영체계, 의료인의 일률적인 인공영양 처방등의 요인으로 인해 1990년대에는 24% 수준에 미치고 있다(권숙희 등, 1993 ; 대한간호협회, 1995 ; 박인화 등, 1994).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모유수유 증진을 위해 대한간호협회, 유니세프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모유수유에 대한 가치 인식, 병원에서의 모자동실 운영, 분유 광고 금지 등으로 모유수유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모유수유에 관해 국내외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모유수유의 실태, 모유수유 실천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는 많으나 모유수유 증진 전략에 관한 연구나 모유수유를 실천하고 있는 어머니들의 경험을 다룬 논문은 드문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유수유를 실시한 초산모들의 모유수유에 관한 산 경험을 질적연구 방법에 의해 탐색하고자 한다. 즉, 초산모에게 있어서 모유수유가 어떤 상황에서 시도되는지와 그 과정을 분석하여 기술함으로써 그러한 경험을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그 관계를 규명하여 모유수유 경험과정에 대한 이론적 틀을 마련하고자 한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과학대학 박사과정

\*\* 국립보건원 훈련부 보건연구사

다. 그리하여 초산모의 입장에서 성공적인 모유수유 실천을 위한 간호중재를 모색하여 간호실무와 모유수유를 돕기 위한 전문지식체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 II. 문헌고찰

### 1. 모유수유의 중요성 및 의의

#### 1) 영아 사망율의 감소효과

1980년대에 이르러 영아사망율을 낮추는데 모유수유가 기여하고 있음이 발표되어 선 후진국을 막론하고 인공수유로 인한 사망위험과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WHO 미주지역 사무처(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에서 이루어진 연구결과에 의하면, 인공수유아의 경우 위장관계 감염으로 인한 사망위험비가 모유수유아에 비해 3-5배인 것으로 발표되었으며(Cunningham, 1991), 모유수유아에 비해 원인불명의 돌연사에 대한 위험비가 3.7배인 것으로 나타나 인공수유는 「영아 돌연사 증후군」(sudden infant death syndrome : SIDS)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Damus et al., 1988). 그리하여 모유는 전세계적으로 아동을 사망에서 구할 수 있는 최상의 자연식품으로 입증되고 있다.

#### 2) 질병예방 효과

모유만을 먹은 영아와 우유만을 먹은 영아의 질병사이의 차이를 비교하여 모유만을 먹은 영아의 위장관계 질병 발생율이 우유를 먹은 영아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간협신보, 1995).

우유 단백질은 이중단백이기 때문에 영아기의 가장 흔한 식품 알러지의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모유수유는 피부발진, 두드러기성 구진 등의 알레르기질환 발생율이 인공수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Gerrard, 1973), 알레르기에 대하여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아토피성 피부염의 진행을 느리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ucas et al., 1990).

성장후에도 일부 만성질환의 발생을 억제해 준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모유는 건강의 장기적 효과측면에서 주목받게 되었는데, Koletzke & Sherman(1989)의 연구결과 성인기의 만성 소화장애, 급성 국한성 소장염, 췌장성 대장염등의 가능성은 인공수유를 한 경우에서 발생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oletzke et al., 1989).

#### 3) 건강증진 및 관련 효과

모유에는 정신적인 성장에 필요한 cystine과 뇌성장과 성숙에 중요한 유당과 taurine이 함유되어 있어 모유를 먹고 자란 아동들은 모유를 먹고 자라지 않은 아동들보다 IQ 점수가 의미있게 높았다(Ridordan et al., 1980).

또한 모유수유 상황은 모아의 상호 눈맞춤, 미소발생 등의 상호작용 행동이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축적결과는 모아관계를 증진시킨다(대한간협 보수교육교재, 1994).

모체 측면에서 볼 때에도 모유를 먹일 경우 산욕기 모체의 건강회복이 빠르고 산후출혈 및 산욕기 감염의 기회가 감소한다. 영아에게 젖을 빨림으로서 뇌하수체에서 옥시토신과 프로락틴이 분비되어 모체의 배란을 억제하므로 자연 피임효과(정혜경, 1994)가 있으며 난소가 휴식을 취하므로 난소암의 발생률이 줄어들며 산모의 출산후 우울증이 적다(대한간협 보수교육교재, 1994).

### 2. 모유수유 실천을 저해하는 요인

#### 1) 여성취업의 증대

1970년대 이래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발전과 더불어 여성 취업률은 계속 증가되었다(통계청, 1996). 인공수유를 하지 못하는 어머니에 대한 조사결과 모유수유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직장때문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76.4%) 기혼녀의 취업이 모유수유 실천에 직접적인 장애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효진, 1993).

#### 2) 의료기관에서의 모자분리 제도

병원 분만으로 인해 신생아가 어머니와 분리되어 「신생아실」에서 간호관리를 받게 되어 모유수유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유니세프를 중심으로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만들기 운동」을 통해 모자동실을 권장하고 있으나 시설, 제도적인 제한점으로 인해 잘 실시되고 있지 않다.

#### 3) 모유대체식품 생산량 증가

1950년대에 시작한 우리나라의 영유아용 분유산업은 최근에 이르기까지 크게 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75년부터 1992년 까지의 연간 조제분유 국내생산량 추이를 보면, 출생아수는 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유생산량은 매년 증가하여 그동안 2.8배나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모유대체식품 판촉활동

1991년 WHO에서는 모유대체식품의 판촉활동 규제를 위한 「모유대체식품 판매에 관한 국제규약」을 제정하여, 세계 각국에 이의 이행을 촉구해 왔다. 1991년 4월에는 우리나라의 모든 분유조제 회사들이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등에 선전이나 광고를 하지 않을 것을 서명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최근 분유회사들은 조제분유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인공 젖꼭지나 이유식품 분유를 표방한 모유대체식품들을 대중매체를 통하여 다시 선전하고 있으며 심지어 버스나 지하철 광고판에도 분유광고를 하고 있어 어머니들에게 진정한 모유의 가치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희석시키고 있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성공적으로 모유수유를 실시한 초산모의 모유수유 경험에 대한 본질을 파악하고 이들 경험과 관련된 여러 변인들을 파악하여 이들 변인들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질적연구 방법중의 하나인 근거이론 접근을 사용하였다.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적어도 8주이상 모유수유를 실시한 어머니로서, 현재 모유수유를 하거나 최근 까지(6개월 이하) 모유수유를 실시한 초산모 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자료수집 기간은 1996년 11월 9일 부터 12월 20일 까지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주위에 모유수유를 실시하고 있는 친지나 친지의 소개를 받아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간단히 설명한 후, 연구의 참여를 허락받았다. 연구에 대한 참여는 강요하지 않았으며, 연구는 익명으로 진행되며 연구목적외로는 연구자료가 사용되지 않을 것이고 대상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구를 중단할 수 있다는 대상자의 인권보호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자료수집을 시작하기 위해, 전화로 대상자가 편안한 장소와 시간을 물어 약속 하였다. 그리하여 대상자의 편의에 따라 시간을 정하였으며 방문 약속일에는 다시 전화로 한가한 시간을 재확인하였다. 연구자 2인은 시간

적인 제약으로 같이 방문하지는 못했으나, 연구시작전 서로 연구질문 내용과 방법이 일치됨을 확인하였다.

방문시 연구자는 대상자에게 연구의 내용과 목적, 소요시간, 인권에 대하여 설명하고 모유수유를 시작한 계기와 모유수유 과정, 모유수유의 결과에 대한 모유수유 경험을 말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면담을 시작하였다. 면담은 거실이나 방에서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하였다.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40분에서 60분 정도였으며 대상자에 따라서 1-3회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자료는 누락을 예방하기 위해 대상자의 동의하에 녹음하였는데, 대상자들이 녹음기를 의식하지 않도록 녹음기는 시야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해 놓았다. 면담시에는 대상자가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이야기 하도록 격려했고, 연구자가 원하는 답을 유도하거나 암시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관성 있게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였다.

면담후, 연구자는 대상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였으며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자료의 수집과 동시에 시작하였는데, 분석의 절차는 Strauss & Corbin(1990)이 제시한 근거이론 방법의 분석절차를 거쳤으며 그때 나타난 개념과 범주를 고려하여 다음 면담시의 질문내용을 구성하였다.

① 대상자와의 면담내용을 매 면담 후 전체 필사하고 매 줄마다 분석하여 그 현상에 대한 개념의 명명화와 임시적 범주 형성단계를 거쳤다. 개념의 명명시에는 경험에 대한 의미의 왜곡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대상자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② 개념들을 묶어 보다 높은 추상화 수준인 하위범주로 축소화시키는 작업을 지속하였으며, 이와함께 임시적인 파라다임 모형을 형성하면서 이론적 포화상태에 이를때 까지 면담을 진행하였다.

③ 형성된 범주를 한 단계 더 추상화하여 상위범주들을 찾아내고 이들을 선행조건, 맥락, 현상, 중재상황, 상호작용전략 및 결과로 분류한 다음 이들의 속성과 정도의 영역을 매개로 분석적 파라다임을 형성하였다.

④ 상기와과정에서 모든 다른 범주들이 연결되어 질 수 있는 중심적인 현상인 핵심범주를 찾아내고 각 범주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가를 분석하였다. 이후 핵심범주와 인과적 선행조건, 맥락, 중재상황 그리고 상호작용

전략과 결과의 가설적인 관계를 진술의 형태로 표현한 관계진술을 개발하고 핵심범주와 각 범주간의 관계개요를 서술적으로 기술한 가설적 관계개요를 제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6명이었다.

이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대상자의 연령분포는 27세에서 36세까지였으며 학력은 전문대졸이상이었다. 종교는 기독교와 천주교가 각각 2명씩이었으며 2명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분만형태는 제왕절개 3명, 정상분만 3명이었다.

아기의 월령은 2-9개월이었으며, 아기의 성은 남아가 4명, 여아가 2명이었다. 대상자중 2명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 2. 근거자료 분석결과

초산모의 모유수유 경험에 관한 연구 결과 총 105개의 개념이 도출되었으며, 하위범주 21개, 상위 범주 14개로 축소화하여 연결 코딩의 핵심을 이루는 파라다임 모형을 다음과 같이 개발하였다.

###### 1) 근거이론 파라다임에 따른 결과 제시

Strauss & Corbin(1990)은 근거이론 개발과정에서 범주들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관계에서 연결된다고 하였다. 즉, 한 현상의 발생 또는 발전을 유도하는 인과적 선행조건, 그 경험의 중심이 되는 사상과 사건이 관리, 조직되어지는 현상, 현상에 속한 일련의 구체적인 속성과 정도의 영역으로 정의되는 맥락, 주어진 맥락내에서 상호작용 전략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좀 더 광범위한 구조적인 상황인 중재상황, 현상을 관리하고 수행하는 개인 또는 집단의 상호작용적 전략, 전략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의 관계로 연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파라다임의 순서에 따라 제시하고자 한다.

###### ①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

현상을 일으키고 진행시키는 사례로, 본 연구에서는 <영아 영양식>, <모유수유 계기 형성>이 모유수유를 시도하는 선행조건으로 나타났다.

- 영아 영양식

원자료의 예

- “엄마젓은 사람이 딱게 만든 건데”
- “엄마가 주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물”
- “언제라도 따뜻하게 밥주는 건데...”

- 모유수유 계기 형성

원자료의 예

- “아기한테 가장 좋은 거라고 해서...”
- “일단 한번 먹여보면 틀리다고...”
- “처음부터 나는 젖을 먹여야겠다 생각했고...”

###### ② 맥락(Context)

현상이 발생하는 일련의 구조적 장으로 상호작용전략이 취해지는 일련의 조건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모유수유의 상호작용이 수행되는 과정동안의 상황은 <만족감>, <유방의 손상>, <신체적 고통>으로 나타났다.

- 만족감

원자료의 예

- “조그만 애가 잘 빨아주는게 기특하고 고맙고...”
- “제일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때만큼은...”
- “젖을 먹이고 나면 무어라 표현할 수 없지만 웬지 흐뭇하고...”

- 유방의 손상

원자료의 예

- “나중에는 것이 찌꺼 갈라져서 거기서 피가 나오고...”
- “찢어진 피부를 애가 짹물면, 저절로 악을 써요. 온 몸에 소름이 짹 끼치는게 찬물을 몸에 끼얹은 것 같아요.”

- 신체적 불편감

원자료의 예

- “자세가 힘들어서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해서 한참을 두들겨야...”
- “팔이 나중에는 느낌이 없고, 땀은 계속 비오듯 주룩주룩 하지...”
- “벼개를 몇개씩 괴고도 계속 손, 발이 아프니까, 기대다가 앓았다가...”

###### ③ 현상(Phenomena)

대상자가 해결하려는 목표로 상호작용전략과 관계를 맺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유수유 경험의 속성으로 <모성의 인식>, <모성의 형성>, <연결된 끈>, <함께함>이 나타나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한다고 볼 수 있다.

- 모성의 인식

원자료의 예

- : “내가 이제는 진짜 엄마가 되었구나...”  
 “애기만 낳아서 엄마가 되는게 아니고 젖을 주니까 그때 처음으로 엄마가 된게 실감이 나고...”  
 “애한테 젖을 주고 나니까 얼굴도 엄마 얼굴 같이 변했다고 하고...”
- 모성애의 형성  
 원자료의 예  
 : “딸이라고 서운했는데 젖 먹여서 그런지 귀엽고 이쁘게...”  
 “애기한테 젖하고 같이 내 정도 싹 다 가는 것 같아요.”  
 “마음이 더 가면서 정도 더 두터워지고...”
  - 연결된 끈  
 원자료의 예  
 : “이제 우리는 말로 안해도 서로 썩! 하고 통하는 게 있고...”  
 “애기 눈만 봐도 뭘 원하는지 알고...”
  - 함께 함  
 원자료의 예  
 : “애기와는 떨어질 수가 없죠.”  
 “엄마품을 떠나지 못하고 항상 엄마만 찾고 엄마품을 그리워하고...”  
 “외출을 못하잖아요. 아기 떼어놓구...”
- ④ 중재상황(Intervening condition)  
 현상과 상호작용 전략을 포함하는 구조적 상황으로 상호작용전략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용함>, <노력함>이 모유수유의 상호작용전략을 촉진하거나 강화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 수용함  
 원자료의 예  
 : “뭘든지 쉬운 일이 없으니까 쉬우면 누구든지 다 하게...”  
 “너무 조금하게 마음 먹지 말고 서서히 애도, 나도 적응한다 생각하고...”  
 “우리 부모도 나를 이렇게 키웠는데...”
  - 노력함  
 원자료의 예  
 : “남들은 포기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엄마 역할을 할꺼라고...”
- ⑤ 상호 작용 전략(Interaction strategy)  
 현상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으로 목표지향적인 성격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안정>, <모아의 건강>이

- 초산모가 모유수유를 위해 행하는 전략으로 나타났다.
- 정서적 안정  
 원자료의 예  
 : “마음이 편하고 안락한 느낌이 드는지 젖 먹을 때는 눈 감고 평화로와져요.”  
 “보채지를 얹고 잘 자고 순해지고 욕구불만도 없는 것 같아요.”  
 “애가 좀 불안해 하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꼭 끼고 먹이면 짜증도 안내고 편안해 해요”
  - 모아의 건강  
 원자료의 예  
 : “그걸 먹이면 빠는 순간부터 자궁이 수축된다는 느낌이 와요.”  
 “애가 잔병이 없고 토할려고 그러지도 않고 굳이 트림 안 시켜도 탈이 없어요”  
 “태열기 같은 것도 없고 똥도 색깔이 틀려요. 황금색이에요.”  
 “1년 가까이 병을 앓지 않았어요.”
- ⑥ 결과(Consequence)  
 현상에 상호작용전략이 취해져서 나타나는 결과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유에 대한 확신, 만족감의 하위 범주로부터 <성취감>이 결과로 나타났다.
- 성취감  
 원자료의 예  
 : “내가 생각해도 내 자신이 한계 기록하고 자랑스럽고...”  
 “할 일을 다한 것 같으니 만족하고...”  
 “젖 먹이는 동안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런 일을 잘 견디고 나니 다른 어떤 역할도 잘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고...”
- 이상의 결과로 부터 초산모의 모유수유 경험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을 제시하였다(도표 1).
- 2) 자료의 관계 진술, 가설적 관계 개요
- ① 관계진술  
 본 연구에서 나타난 범주들은 다음과 같은 관계 진술로 나타낼 수 있다.
1. ‘영아 영양식’이라는 인식이 강할 수록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은 확고해진다.
  2. ‘모유수유 계기 형성’이 되어있을 수록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은 확고해진다
  3. ‘만족감’이 강할 수록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은 확고해진다.

〈표 1〉 근거이론 패러다임에 따른 개념 및 범주화

개 념	하위 범주	상위 범주	패러다임
자연음식, 아기 음식 좋은 영양소, 애기 먹을것	자연식품	영아 영양식	
주위에서 권함, 해 보라고 함 모유에 대한 홍보	주위의 권유	모유수유	(선행조건) 모유수유의 필요성 인식
해 보고 싶음 할 수 있을 것 같음	자신의 의지	계기 형성	
수유시 엄마기분이 괜찮음 흐뭇함, 편안함	좋은 감정	만족감	
아기가 기특함 고마움	기특함		
눈물이 남, 피부가 갈라짐 아픔, 피가남	유방의 동통	유방의 손상	(맥 락) 모유수유 수행과정
쓰라림, 피부가 혈음 젖이 처짐, 젖 모양이 미워짐 젖이 풍선 같음	유방의 변화		
허리가 아픔, 자세가 힘들 다리가 아픔, 땀이 남 다리가 결림	신체적 불편감	신체적 고통	
배고픔, 허기짐 졸리움, 기운이 빠짐 어지러움, 진이 빠짐 피곤함, 살이 빠짐 몸이 축남	신체적 기력의 상실		
엄마라는 느낌 진짜엄마 엄마 같은 느낌 엄마가 됨	어머니 역할 확인	모성의 인식	
애정이 생김, 이쁨 사랑이 생김, 귀여움 정이 생김, 마음이 감 애착이 감, 친근감이 생김	애정이 생김	모성애의 형성	(현 상) 어머니로서의 정체성
살이 닿음, 꼭 안음 마주 봄, 따뜻해짐 더 자주 봄, 가까이 함, 아기와 밀착	밀착감	연결된 끈	
서로 통합, 연결됨	연결체		
외출을 못함 아기를 떼어 놓지 못함 다른 사람이 대신 못함	엄매임	함께 함	
포기하지 않음, 끝까지 다함 할일을 다함, 역할을 다함	역할의 수행	노력함	
참여성, 여유를 가짐 이해하려고 함, 성숙함 타인에 대한 배려, 융통성 부모를 이해함	포용력	수용함	(중재 상황) 최선을 다함

개 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파라다임
아기가 순해짐, 거칠지 않음 잡을 잘 잡, 보채지 않음, 짜증을 안 낸 잘 울지 않음 정서적으로 안정됨 욕구불만이 없음 평화스러움, 불안하지 않음	심리적 편안함	정서적 안정	(상호작용전략) 모아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증진
엄마가 건강해짐 밥맛이 좋아짐 체중이 증가하지 않음	모체의 건강		
병치레하지 않음, 안 토함 소화가 잘 됨, 뱀리 큼 변 색깔이 좋음, 살이 잘 오름 태열이 없음, 탄탄해짐 배탈이 덜함	영아의 건강	모아의 건강	
모유에 대한 인식이 바뀜 잘 한 느낌, 안심이 됨	모유에 대한 확신		
만족스러움, 자랑스러움 자신이 기특함, 자신감 행복감, 나만이 할 수 있음 존재가치 인식, 뿌듯함	만족감	성취감	(결 과) 성공적인 모유수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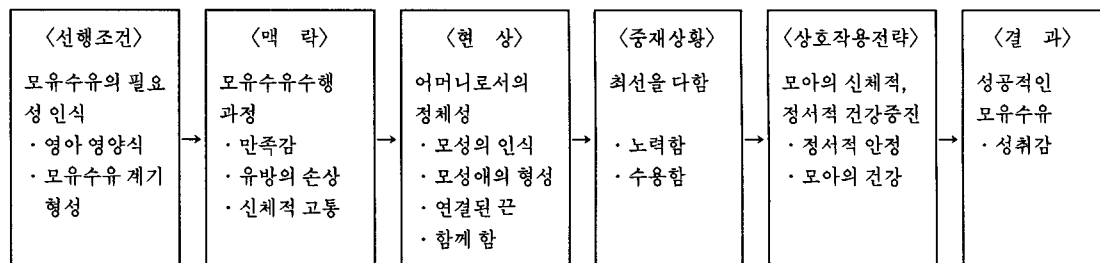


도표 1. 초산모 모유수유 경험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4.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이 확고할 수록 '정서적 안정', '모아의 건강'이 증진된다.
5. '수용함'이 클수록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은 '정서적 안정', '모아의 건강'을 도모한다.
6. '노력함'이 클수록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은 '정서적 안정', '모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한다
7.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은 모아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 증진을 도모하며, 이를 통해 '성취감'을 얻게 되어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② 가설적 관계 개요

본 연구에서의 가설적 관계개요는 초산모가 모유수유 과정에서 겪는 경험에 대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

초산모는 모유가 좋은 영양소의 영양식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주위의 권유와 자신의 의지로 모유수유를 하려는 계기가 형성되어 모유수유를 시도하게 된다. 모유수유를 시도한 초산모는 모유수유과정을 통해 유방의 동통 및 변화, 허리, 다리가 아프고 신체적으로 기력이 상실되는 등 신체적 고통을 경험하지만 모유수유를 잘 했다는 흐뭇한 만족감을 갖게 된다. 이 과정을 경험하면서 진짜 엄마가 된 느낌을 갖게 되고, 아기에 대해 모성애가 형성되며, 아기와는 떼어낼 수 없는 연결된 끈으로 인식하는 등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이 확립된다.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 어머니는 성숙해지면서 타인을 이해하고 인내심이 생기는 등 포용력을 갖게 되며, 모유수유를 포

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하려고 하는 등 모유수유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모유수유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어머니는 아기가 심리적으로 편안하여 정서적으로 안정되며 모체, 영아 모두 건강이 증진됨을 인식하여 결과적으로 모유에 대한 확신을 갖고 뿌듯함을 느끼며 성취감을 가져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경험하게 된다.

### 3. 연구의 신뢰도, 타당도

근거 이론 방법론에서 연구의 타당도는 면담 환경의 친숙함, 지속적인 자료의 비교에 따라 결정된다. 연구자는 이론적 민감성을 획득하기 위해 장기간 동안의 문헌 고찰을 시행하였으며, 연구 대상자의 진실 왜곡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하여 주위의 소개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연구의 참여를 강요하지 않았다.

자료 분석시에는 수집된 자료를 계속적으로 비교하고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 자료의 타당도를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상자와 1-3회의 면담을 시행했으며 결과를 대상자에게 확인하였다. 또한 결과를 2차자료인 문헌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비교하였으며, 연구결과의 과정에 대한 평가를 위해 연구과정을 제시함으로써 감사가능성(auditability)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 V. 논 의

본 연구는 초산모의 성공적인 모유수유경험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밝히는데 있다.

대상자들이 모유수유를 실시하게 된 선행조건은 모유수유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고, 이는 <영아영양식>, <모유수유의 계기 형성>으로 이의 하위범주로는 “자연식품”, “주위의 권유”, “자신의 의지”가 포함되었다. 즉, 모유는 자연식품으로 영아가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영양소이며 모유에 대한 홍보나 주위의 권유에 의해서 자신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도하게 된 것이다. 이는 김과 이(1993)의 연구에서 어머니들이 모유의 의미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아기 먹을 것”, “천연자원”, “엄마 몸 안에 있는 것을 주는 것”이라고 인식한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모유수유를 시작하는 계기로는 최근 대한간호협회, 유니세프 등을 중심으로 한 병원에서의 모유수유 홍보가 초산모들에게 모유수유를 촉진하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변, 한(1994)

은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효과가 모유수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한다고 하였는데, 송등(1993)의 연구결과,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제공원으로 T.V, 라디오의 대중매체가 45.5%를 차지하였다. 또한 모유수유를 하고자 하는 어머니의 욕구가 성공적인 모유수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김화숙, 1991) 이는 어머니의 모유수유에 대한 지식과 태도, 신념이 모유수유결정에 시발점이 됨을 알 수 있다. 송등(1993)의 연구결과에서도 연구대상의 50%이상이 본인 스스로 모유수유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여러 연구에서 모유수유에 대한 의사결정 시기가 임신전이나 임신중이라는 연구결과로 미루어 볼 때, 학교에서도 모유수유에 대한 올바른 지식 및 태도를 갖도록 교육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상자들은 모유수유과정동안 <만족감>, <유방의 손상>, <신체적 고통>을 경험하는데, 이의 하위범주로는 “유방의 동통”, “유방의 변화”, “신체적 불편감”, “신체적 기력의 상실”이 포함되었다. 대상자는 모유로 충만되어 울혈된 유방을 아기가 빨음으로 인해 시원함과 더불어 편안함을 느꼈고 아기가 기특하고 고맙게 느껴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잦은 빈도로 아기가 빨음으로 인해 유두의 피부가 손상되어 고통을 경험하였으며, 이전의 모유수유경험이 없어 자세가 불편하다고 하였다. 모유수유는 어머니에게 심리적인 면에서 최고의 만족감, 기쁨, 가치감을 느끼게 하며(정혜경 외, 1993) 모유수유과정동안 어머니는 정서적인 만족감을 느낀다(하영수의, 1991). 즉, 모유수유는 어머니에게 상당한 만족감과 즐거움을 주어 모유수유를 하는 어머니는 심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김화숙, 1991). 그러나 모유수유하는 과정동안 어머니들은 유방의 종창을 경험하는데(송지호외, 1993), 이등(1994)은 어머니들의 모유수유 중도 포기 이유로 유방이나 유두의 문제를 제시하였다. 이는 모유수유시의 부적절한 자세가 유두손상과 출혈의 원인이 되므로(하영수의, 1991) 간호사는 모유수유하는 어머니의 수유자세를 사정하여 잘못된 경우, 적절히 교정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Bottoff(1990)는 모유수유하는 어머니의 빈번한 문제로 피로를 제시했는데 정과 이(1993)의 연구결과 어머니들은 “모유수유는 산모의 에너지 소모가 커서 산모의 건강을 해치기 쉽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모유를 먹이면 모체가 약해진다는 잘못된 의학 지식에 기인한 것으로, 모유수유시의 적절한 영양섭취에 대한 교육이 행해져야 된다고 사료된다. 모유수유하는 어머니는 인공영양하는 어머니보다 일반적으로 체중감소가 있는데 이는 임신시 남아있는 체중이 유



즙을 만드는데 서서히 사용되기 때문이다.

대상자의 모유수유 경험의 중심현상은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으로 이 현상은 <모성의 인식>, <모성에의 형성>, <연결된 끈>, <함께 함>으로 설명되며, 하위범주로는 “어머니 역할 확인”, “애정이 생김”, “밀착감”, “연결체”, “엄매임”이 포함되었다. 대상자는 출산과정만으로 어머니가 되었다고 인식하기 보다는 모유수유 과정의 경험을 통해 어머니가 되었다는 강한 자각과 함께 모유수유시의 피부접촉과 신체적 밀착을 통해 아기에 대한 애착이 생기며, 아기와 연결된 일체감을 느낀다. 정과이(1993)의 연구결과 어머니들은 모유는 자기 자식에 대한 최초의 사랑의 표현이며 모유수유를 함으로써 엄마라는 느낌을 갖고 엄마로서의 당연한 도리로 인식하고 있었다. Bottoff(1990)도 모유수유는 영양을 제공하는 모성애이며, 모성애를 정당화시키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또한 Klaus와 Kennell(1976)의 연구에서도 모유수유를 통해 모자상호간의 긍정적인 강화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송등(1993)의 연구에 의하면, 최근 어머니들이 인공영양을 하는 실제적인 요인으로 편리함, 엄매임으로부터의 자유, 남편이나 다른 사람과 수유 책임감을 나눌 수 있음을 제시하였으나, 모유수유는 어머니와 아기만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친밀감의 감정을 성장하게 하므로써 아기가 어머니의 한 부분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다(Entwistle, 1991).

모유수유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거나 강화하는 요인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수용감>, <노력함>인데, 이의 하위범주로는 “포용력”, “역할의 수행”이 포함되었다. 대상자는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위해 어머니 위주보다는 아기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과 인내를 가지고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다.

대상자가 모유수유를 위해 행하는 상호작용전략은 모아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증진으로 설명되는 <정서적 안정>, <모아의 건강>이며 하위범주로는 “심리적 편안함”, “모체의 건강”, “영아의 건강”이 포함되었다. 아기가 잠을 잘 자고 욕구불만이 없고 순해지는 등 정서적으로 안정된 심리적 편안함과 엄마가 건강해지고 영아의 소화상태, 성장발달 등의 모아의 건강이 모유수유를 지속하게 하는 전략이 되었다. 모유수유가 영아의 정서적 측면면 모아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많은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정과이(1993)의 연구에서는 어머니들이 ‘아기에게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모유는 영아의 연령에 따른 성장요구에 맞게 생산되며(Entwistle, 1991) 유즙 내에 있는 고도

의 지방성분이 영아로 하여금 젖을 그만 먹도록 유도하여 비만증을 예방한다(Klaus & Kennell, 1982). 또한 Forman(1974)은 모유를 먹고 자란 사람은 성인이 된 후에 비만증, 고혈압, 심질환 등의 이환률이 낮다고 보고하였다. 모유영양아와 인공영양아의 질병 이환율을 비교한 김 등(1993)의 연구결과에서도 모유영양아의 경우 4개월 이내에 소화기 질환의 발생이 전혀 없었고 5-6개월에 1예만 있었던 반면에 인공영양아의 경우 6개월까지 68예로 유의하게 발병빈도가 높게 나타나 모유내에 함유된 면역물질이 우수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어머니의 건강 측면에서 볼 때, 모유수유는 유방암의 발생율을 저하시키고 수유시킴으로서 임신중 축적된 지방분을 소모하게 해주며, 영아가 빨때 분비되는 oxytocin의 자극으로 자궁수축이 증진되며 산후 8-9개월까지는 자연적인 피임효과를 얻게 된다(Baer, 1981). 또한 모유수유가 난소암에 걸릴 확률을 감소시킨다는 보고도 있는데(서울신문, 1986), 이등(1993)의 연구에서는 과거 어머니들은 모유를 먹이는 것이 어머니 자신의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대상자의 모유수유경험의 결과는 <성취감>으로 하위범주로는 “모유에 대한 확신”, “만족감”이 포함되었다. 대상자는 모유수유를 통해 모유의 장점에 대해 강하게 인식하게 되고 자신이 잘 했다는 생각과 함께, 자신이 자랑스럽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한번 더 인식하고 자신감에 찬 만족감을 경험하게 된다. 김과이(1993)는 모유수유를 한 어머니들은 모유수유가 가치있었다고 하였다. Bottoff(1990)도 모유수유는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도 모유수유의 느낌은 생각나고 기대되고 회상되는 황금순간으로 기억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모유가 최고(Breast is best)라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대상자들의 경험을 통한 이러한 모유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만족감은 다음 출산후에도 모유수유를 다시 시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송(1989)은 과거에 모유수유 한 경험이 있는 여성일수록, 그 다음 아기에게도 모유수유를 할 확률이 높다고 하였는데, 정과이(1993)의 연구 결과에서도 모유수유하는 경산모의 경우 첫아기에 게 모두 모유수유한 경험이 있었다.

위의 초산모의 모유수유 경험을 통하여 모유수유 실천에는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초산모뿐만이 아닌 가족과 의료인을 포함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간호사는 임신시 부터 모유수유에 대한 올바른 정보 및 교육을 제공하며 모유수유과정 동안 대상자가 경험하는 어려운 문제에 대한 상담, 지지

를 제공하여 대상자가 그러한 문제를 극복하여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이끄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본다.

##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최근에 와서 모아의 건강을 위하여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모유수유'에 대하여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처음 경험한 초산모를 대상으로 그들의 경험이 어떤 것인지에 근거이론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여 '모유수유가 어떻게 시작되고 경험되었는지 그 일련의 과정을 제시함으로써 간호사들의 이해를 도와 모유수유를 위한 간호중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행해졌다.

연구대상은 영아의 주 영양공급원으로 적어도 8주 이상 모유를 공급한 경우를 모유수유로 정의 한다는 문헌에 근거하여, 적어도 8주 이상 모유수유를 하거나 최근까지(6개월 이내) 모유수유를 실시한 초산모 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본 연구의 목적에 동의하였으며 대상자에 따라서 1-3회의 면담을 하였고, 대상자의 허락하에 면담내용은 모두 녹음한 후 필사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trauss & Corbin(1990)이 제시한 근거이론 분석방법에 의해 분석되었다.

근거자료 분석과정에서 총 105개의 개념이 도출되었으며, 하위범주들은 자연식품, 주위의 권유, 자신의 의지, 좋은 감정, 기특함, 유방의 동통, 유방의 변화, 신체적 불편감, 신체적 기력의 상실, 어머니역할 확인, 애정이 생김, 연결체, 열매임, 밀착감, 포용력, 역할의 수행, 심리적 편안함, 모체의 건강, 영아의 건강, 모유에 대한 확신, 만족감등 21개였다.

이들 하위범주들은 영아영양식, 모유수유 기기 형성, 만족감, 유방의 손상, 신체적 고통, 모성의 인식, 모성에의 형성, 연결된 끈, 함께 함, 수용함, 노력함, 정서적 안정, 모아의 건강, 성취감의 14개의 상위범주로 통합되었다.

근거자료 분석과정에서 각 범주들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7가지 관계진술이 도출되었으며, 초산모가 모유수유 과정에서 겪는 경험에 대한 가설적 관계개요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공적인 초산모의 모유수유경험을 이해하게 하므로써 간호사는 처음으로 모유수유를 실시하는 초산모들에게 모유수유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간호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

한 결과 모아의 건강 뿐 아니라 가족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모유수유에 대한 실무와 이론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1. 성공적으로 모유수유를 실시한 대상자 뿐만 아니라 도중에 모유수유를 포기한 대상자들을 포함한 연구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2. 본 연구의 결과를 임상의 간호과정 적용시에 활용하여 그 효과를 검토하고 결과를 수정하므로써, '모유수유'에 대한 간호진단 및 중재에 활용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간협신보(1995년 11월 2일), 모유수유 실태와 장애요인, 제 898호. 3.
- 권숙희, 김영자, 김영혜, 김민순, 문길남, 박금자, 박봉주, 박순옥, 박춘자, 배영순, 배정이, 백경선, 송애리, 이영은, 이은주, 이지원, 이화자, 정경애, 정은순, 최혜숙(1993), 모유수유 실천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모자간호학회지, 3(2), 172-186.
- 김신정, 이정화(1993), 어머니의 모유수유 경험에 대한 연구, 간호과학, 제5권, 33-65.
- 김효진(1993), 영아의 수유 및 보충식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화숙(1991), 모유수유를 실천했던 초산부의 모유수유 지속 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대한간협 보수교육 교재(1994), 모유수유.
- 대한간호협회(1995),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결과보고서, 대한간호협회.
- 박인화, 황남이(1994), 모유수유 실태 분석과 지원대책의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방매륜(1983), 출산에 관한 한국의 전통문화가 모유수유 실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규희(1989), 서울 시내 일부 병원에 내원한 임신부들의 모유수유에 관한 태도 및 지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지호, 김순애, 문영수, 박영주, 백승남, 변수자, 이남희, 조결자, 조희숙, 최미혜, 최양자(1993), 영유아 어머니의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 및 실천에 관한 연구, 모자간호학회지, 3(2), 154-165.

- 이미라, 서연옥, 조정호, 김태입, 박영숙, 박송자, 박인숙, 박종숙, 이해경, 임현빈, 조동숙, 조숙남, 최상순(1993), 전통적 모유량 증가방법에 관한 연구, 모자간호학회지, 3(2), 142-152.
- 이자형, 변수자, 한경자(1994), 모유수유 관련 요인 및 어머니의 교육 요구, 간호과학, 제6권, 76-85.
- 정금희(1996), 모유수유 증진 간호중재 프로그램이 초산모의 모유수유 실천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혜경(1994), 임부의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유형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혜경, 이미라(1993), 임부의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유형 분석, 모자간호학회지, 3(2), 126-141.
- 하영수, 이경혜(1991), 모성간호학, 신광출판사.
- 통계청(1996), 한국의 사회지표.
- Baer, E. C.(1981), Breastfeeding and Family Planning Meaningful Integration of Service, Studies in Family Planning, 12(4), 185-187.
- Cunningham, A. S.(1991), Breast-feeding and health in the 1980s, Journal of Pediatrics, 118(5), 659-666.
- Damus, K., Pakter, J. et al.(1988), Postnatal medical and epidemiological risk factors for the sudden infant death syndrome, New York Publishing Co. 187-201.
- Entwistle, F.(1991), The Most Natural Function, Nursing Times, 87(18), 27-30.
- Forman, S. J(1974), Infant Nutrition, Philadelphia W. B.
- Gerrad, J. W. et al.(1973), Cow's milk allergy, Acta Pediatric Scand., 234, 1-21.
- Klaus, M. H, Kennell, H.(1982), Parent-Infant bonding, 2nd ed. St. Louis C. V. Mosby co.
- Koletzko, S., Sherman, P. et al.(1989), Role of infant feeding development of Crohn's disease in childhood, British Medical Journal, 298, 1617-1618.
- Murdaugh, A., Miller, L. E.(1972), Helping the Breast-feeding Mother, AJN, 72(8), 1420-1423.
- Ridordan, J., Countryman, B. A.(1980), Basics of Breastfeeding, JOGN Nursing, 9(4), 207-213.
- Strauss, M. A. and J. Corbin(1990), Basic of Quali-

tative Research, Newbury Park, CAL : SAGE Publications.

- Abstract -

Key concept : Primiparous Women, Breastfeeding Experience

## A Study of Primiparous Womens' Breastfeeding Experience

Kim, Shin Jeong\* · Yang, Sook J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subjective breastfeeding experience of primiparous women to identify how breastfeeding was started and to explore the process of breastfeeding. The Grounded theory methodology was used.

Data was collected from 6 primiparous women who had breastfed their infants for at least over 8weeks, recently breastfeeding or having breastfed their infants within the last 6 months. With the permission of the subjects, the interviews were recorded and transcribed.

The data were analysed in the framework of grounded theory method as mapped out by Strauss and Corbin(1990). 105 concepts and 21 sub-categories were confirmed in the analysis.

In the process of data analysis, "Identity as a mother" was found to be the core phenomenon.

The 21 sub-categories were as follows : natural food, neighbour inducement, self purpose, good feeling, tenderness, breast pain, change of breast shape, physical discomfort, loss of physical energy, confirmation of maternal role, formation of affection, feeling of adhesion, one body through coupling, tie, capacity, role performance, mental comfort, healthy mother, healthy infant, confidence of breast milk,

\*Doctoral candidate, College of Nursing Science, Ewha Woman's Univ.

\*\*Researcher, Department of Training,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Tel : (02) 380-1439(work), (0344) 911-8752(home)

feeling of satisfaction.

The sub-categories were again grouped into 14 categories including infant nutritious food, formation of breastfeeding opportunity, feeling of satisfaction, injury of the breast, physical suffering,

awareness of mothering, formation of maternal affection, connecting, coupling, acceptance, effort, emotional stability, mother and child health and feeling of achievement.